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헌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겉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37
편 30-3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주간충헌」 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주일저녁 찬양예배 다채롭다

말씀과 찬양, 각종 기념행사 결과 보고 등

주일저녁 찬양예배가 많이 다채로워졌다. 설교 일변도의 주일저녁예배가 아닌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여러 곡의 찬양, 독창, 이중창, 복사중창, 기악연주,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자리, 각종수료식 및 시상식 등 많은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윤위원목사의 베드로전서 강해는 삭막한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하며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다.

설교 이후 진행되는 각부 찬양대들의 경쟁적인(좋은 의미에서) 찬송의 하모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듣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해준다.

앞으로 가족 찬양, 구역식구 찬양, 교구별 찬양과 강해되고 있는 베드로전서 성경암송 등의 순서를 삽입하면 어떨까하는 바램도 해본다.

성경연구원 수료식 12월 3일 주일 저녁예배후

성경연구원은 제32기 교사양성부, 그리고 주간 성경공부, 아담반 성경공부 등록자들의 수료식을 오는 12월 3일(주일) 저녁예배후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수료자들은 당일 복장을 정장하고, 오후6

시30분까지 본당 앞자리로 나와줄 것을 주최 측은 원하고 있다.

한편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은 종강했으며, 내년(90년) 3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충헌제자훈련」 마지막 기회 11월 26일(주)~27일(월)

'89년 충헌제자훈련이 한번의 기회가 남았다. 26일 주일 저녁부터 27일(월) 저녁까지 충헌기도원에서 실시될 제자훈련은 제직 및 신임임직자는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며, 일반 평신도도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남·여전도회 개편총회 12월 17일(주일) 4부예배 후

본교회 남·여전도회 개편총회가 오는 12월 17일(주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남전도회는 요한(30세~39세), 베드로(40세~49세), 바울(50세 이상)로 구분 되었으며, 여전도회는 마리아(30세~39세), 루디아(40세~49세), 에스더(50세~59세), 한나(60세 이상) 등 연령별로 개편 조직이 된다.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라” 사랑부 학부모초청좌담회서 건의

교회학교 사랑부(부장 이종석 장로)에서는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지난 12일(주일) 오전 11시 소석관 105호실에서 개최했다. 좌담회에 앞서 1부 예배는 김상순 부감의 기도, 김정자 전도사가 마 18:14 말씀을 봉독한 후 “믿음 안에서 평생 교육”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김전도사는 설교에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전해한 후 「사랑부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심어주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며, 믿음 안에서의 평생교육,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 가정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2부 초청좌담회는 이종석 부장 사회로 지도교역자와 부장단 인사 소개를 한 후 25명의 학부모가 각기 자기 자녀에 대한 개성과 자라온 과정, 변하는 모습, 버릇, 교회와 사랑부 교사에 대한 감사 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대화로 진행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건의사항으로 학생을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 것과 교통불편, 그리고 과잉 학생수가 많으므로 앞으로 학생과 교사가 1:1로 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 이종석 장로는 연초에 사랑부가 27명이던

학생이 현재 62명 출석으로 부흥과 발전을 하여, 현재의 교사 45명으로는 부족하여 “90년도에는 교사 확보와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교회가 학부모간의 이해와 협조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한 후 김정자 전도사 기도로 모두 마쳤다.

교회설립 기념행사 평가회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성경암송대회, 선교용변대회, 성극경연대회 평가회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7시30분 교역자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승준장로 사회로 진행, 엄필성장로의 기도, 성경 빌립보서 2장 13-14절 봉독후 윤용규목사가 “원광과 시비 없이 은혜롭게 마쳤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선교용변대회의 경우 참가범위를 유·초·소년부까지 확대하고 심사규정의 작성 등 지적이 있었고, 성경암송대회는 각부별 결선자리를 마련해줄 것과 심사엄정, 그리고 시상품 선별수여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성극경연대회는 관객동원이 미진했고, 대상 수상팀의 공연무대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목회자세미나 3학기 종강 제4학기 개강은 내년 2월에

한국교회 성장 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실시한 제3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0일 종강식을 가졌다.

이날 종강식은 김영구목사 사회로 진행, 이태규장로의 기도, 충헌 크로마하프단의 연주와, 유정필 선생의 특순, 그리고 동 연구

원원장 이종윤목사의 말씀과 축도가 있었다.

특히 종강식을 마친 후 본교회 권사회가 마련한 저녁식사와 교제의 시간도 있었다.

이번 3학기는 10주 320시간으로 총출석 연인원이 8,273명이며, 동원차량이 1,642대, 봉사자수가 279명이었다.

또 강의기간중 「주간충헌」이 12,180부가 배포되었고, 개간충헌 1,000부, 교회주보 14,180장, 강의테이프 5,966개, 서적 374권 등이었다.

제4학기 세미나는 1990년 2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충헌프리즘 참조)

1990년도 교회학교 부서장 임명

교회는 1990년도 교육위원회 산하 지도·부지도·부장·부감(남·여)에 대한 인사배정을 완료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세개 부서로 나뉘어지고 24개 교회학교가 27개 교회학교로 늘어났다.

제1교육 위원회는 영아부·유치부·초등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속하게 되며, 위원장에는 조선근 장로가 임명되었다.

제2교육위원회는 청년 1부, 2부, 장년 1부, 2부, 3부, 4부, 소망부, 직전부, 새가정부, 새가족부이며 위원장에는 김차생장로이다.

그리고 제3교육위원회는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 유치부, 살롬 경로대학, 영어주교이며 위원장에는 김영개 장로이다.

각 교육부서 책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No.	부 서		교 역 자		부 장	부 감	
			지 도	부 지 도		남	여
1	영 아 부	정 연 희		차 신 득	김 구 형	김 경 희	
2	유 치 부	김 정 자		정 광 호	김 단 용	장 영 지	
3	초 등 1 부	한 용 관		윤 성 철	박 미 려	백 명 희	
4	초 등 2 부	김 경 성		엄 필 성	원 용 철	강 순 희	
5	초 등 3 부	김 연 이		오 정 현	이 갑 재	정 옥 남	
6	초 등 4 부	장 해 순		하 대 선	양 종 섭	박 종 영	
7	초 등 5 부	신 표 근		최 무 길	박 홍 규	김 순 실	
8	초 등 6 부	김 창 수		손 경 수	이 동 명	이 영 희	
9	중 등 부	김 은 태		노 문 환	황 영 일	남 정 애	
10	고 등 부	송 태 근		최 성 현	임 부 천	김 정 자	
11	대 학 부	김 해 규		이 훈	정 홍 식	이 인 선	
12	청 년 1 부	이 조 웅		강 은 원	황 의 만	손 명 순	
13	청 년 2 부	성 주 진		최 대 원	김 환 기	박 명 엽	
14	장 년 1 부	김 익 경		최 명 환	김 형 선	김 석 운	
15	장 년 2 부	박 형 용		김 은 호	이 하 영	우 순 성	
16	장 년 3 부	윤 영 탁		마 성 락	김 인 관	문 명 애	
17	장 년 4 부	정 규 남		김 원 선	김 여 순	이 외 복	
18	소 망 부	김 학 진	구 명 신	김 재 명	강 봉 수	이 명 자	
19	직 전 부	김 광 석	최 명 자	박 영 식	윤 봉 준	한 경 숙	
20	새 가 정 부	최 인 근	최 순 복	최 상 규	이 지 길	박 효 지	
21	새 가 족 부	김 영 구	김 주 아	강 순 용	김 대 호	최 난 수	
22	사 랑 부	김 동 열	김 정 순	강 모 용	최 차 용	김 상 순	
23	에 바 다 부	김 성 윤	임 태 주	박 인 새	고 병 국	박 윤 석	
24	탁 아	유 순 화		정 윤 석	최 윤 덕	빈 순 애	
25	유 치 원	현 정 남		손 동 운			
26	살롱 경로대학	정 복 인		송 기 홍	주 원 홍	김 순 동	
27	영 어	윤 영 탁		이 병 학	김 상 규	안 춘 진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2)



본문 / 요 6:60-65

예수님을 혹이나 하고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지방 뿐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에게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므로 그들은 눈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오는 군중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될만큼 그의 모습이 분명해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왔지만 막상 따라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 그를 믿어야 구원얻게 된다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엄청난 결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던 모든 사람과 제자들까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 불신앙

제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라도 그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좇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월적인 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렵다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쉬운 말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했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편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은 자연만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교훈의 용어의 뜻이나 문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고 그대로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거절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58절),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떡을 주시는 주님으로 알고 재미있는 연극장면 같이 보여주는

기적의 예수님으로 주님을 따라가던 그들은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결단의 순간을 통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좇게 될 경우에 닥쳐 올 희생과 지불해야 할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어로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 작전

"아무것도 염려하지

을 하는 이유는 자기 편리를 좇아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편리주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좇아온 사람들은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식적으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신앙

적으로 인격을 다 바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의 높이와 신앙의 길이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우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므로(33, 38, 51절) 어렵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

터 오신 분, 이미 하늘에 계셨던 분,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군중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었습니다. 그 뜻이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런고로 군중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신성모독죄로 몰아부쳐 이를 갈며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만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시작부터 대적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대항하고 원수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살다 가신 분으로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창조하신 우주에 찾아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눈에 어두워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지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상식으로, 이해로 따져 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십자가 사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 죽을 살, 그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

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군중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할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다가 십자가 진리를 말하면 그것 때문에 못 믿습니다. 현대인들도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대목에 와서는 다 넘어집니다.

(3)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자들만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었는데 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생명만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 도처, 공산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고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포기하든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점잖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영적이고 신적인 하늘 세계의 것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택하신 자녀에게 때로는 제약을 주시고 규제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정도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대담

(1)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삶은 생즉까지도 통찰하

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의 선재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하려느냐'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질문이요 또 하나는 '그때에는 더욱 믿기가 어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벌써 올라가셨는데 무얼 믿겠습니까. 후자가 더 가까운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주님도 못 믿는 마당에 승천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겠다고 하는가.

(2)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생명을 주시는 영(분)이라는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는 영과 육 중에 육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육신으로 보았다는 그 자체도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앉아 먹기도 하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아는 것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육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로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받은 사람입니다(고전 12:3).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찾고 있으나 우리는 내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초월적인 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물질자체는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물량적으로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감동을 입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다 육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므로 그것도 무익합니다.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생활에 적용할 때에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먹는 자답게 신앙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다짐을 행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가족찬송 · 문예발표 가져

새가정부(부장 박승준장로)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가족 찬송부르기 대회 · 가정 문예 발표회 · 반별 찬사 바구니 꾸미기 대회를 함께 가졌으며 대지의 소출을 값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대했다.

많은 가정의 참가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진 이번행사 중 가족 찬송부르기 대회에서는 권정선자매 · 임희순자매 · 정윤환자매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디모데 전도회 1지회 지교회를 탐방하고 남전도회활동 이모저모

“돌짝 받을 옥토로 일구면서”

한해가 가기전에 우리의 지원교회 옥산교회를 방문하자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있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지난 10. 27. 교구 신앙세미나에 그 교회 목사님이 보행 불편의 육신을 이끌고 산지 사과까지 몇상자 들고 참석하셔서 우리의 망설임은 깨어지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종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새벽기도후 따로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상의하니, 교통편 왕복 6시간 30분. 빼고나면 겨우 두세시간의 여유밖에 없는 앉으면 일어서야 하는 거리였다.

그러나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총무, 행정, 동원, 전도대책, 음향, 식사 간식대책, 홍보, 기록, 행사진행 등 부서를 나눴다. 그리고 매일 새벽 진행상황을 체크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사도행전 16:9-10절을 인용하여 “가서 도우자”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방문목적을 명시하여 계획을 수립, 인재를 하여 모든 회원의 가정마다 우편으로 띄웠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신앙세미나로 막대한 재정 형편에 무일푼인 줄 알면서 시작한 우리의 무모한(?) 계획에 20명의 회원으로부터 특별지원이 순식간에 60만원을 육박하였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하여 방문계획서를 지원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고 그쪽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김천시에서 불과 8km 떨어진 면 소재지인 경북 금릉군 남면 옥산리 옥산교회... 대사찰 직지사를 반드시 경유하는 버스가 수시로 드나들고 다른 종교가 판을 치는 펍박받는 교회... 거기다가 시무목사인 서홍일 목사는 다리까지 불구이시니... 완고하기 짝이 없는 그곳의 풍습, 기독교인이라고 마음놓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현지의 사정을 사전에 입수한 우리 전도대는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단단히하여 점검, 재점검을 거듭하면서 적진을 돌파하는 특공대처럼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원자를 찾았다.

속속 지원자는 나타나 충현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10쌍이었고 가정, 사업, 직장형편에 부부가 못간 인원이 남여 12명, 교역자 2명, 34명의 특공대가 출발하였다. 11월 18일 토요일 아침은 비가 뿌리고 차가와 을씨년스럽고 출발은 예정에서 30분이 늦었다.

형편상 가지못한 회원은 우리가 가는 아침 일찌기 나와서 물건을 실어주며 도우느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에서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후원하는 입체적인 치열한 전쟁준비였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서늘이 쨍쨍 우리의 앞길에 축복으로 내려 주셨으나 우리의 모습들은 사뭇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처럼 비장하기까지 하였다. 차내라고 쉴 수 있던가. 방문단장인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행사 진행을 맡은 부서에서 상세한 행사계획 설명이 있는 후 전도부장의 전의를 돌우는 영적 훈련은 시작되었다. 먼저 휴게소 전도요령과 방문시 기관전도, 축조전도에 대한 요령의 재강조가 있었고 뜨거운 찬양이 시작되었다. 무려 한시간 가까운 연속 찬양인도로 전도부장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고 그 표정은 최전방의 용사와 같았다.

어디서 그 능력이 나왔을까! 편성된 전도

조가 휴게소를 휩쓸때 그야말로 번개같은 휴게소 구석 구석과 정차해 있는 차량마다, 어느 한곳 우리의 전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18분 동안에 하면 얼마나 했겠는가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아니었으니...

예정보다 20분 늦게 도착한 옥산교회는



▲ 1교구 5개 남·여전도회가 특별 담당한 옥산교회 연합집회 모습(전도한 보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

“34명의 특공전도대, 장소 가리지 않고 전도에 열중”

열정이 될까말까한 제방밀의 교회였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듯 세상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다. 환영예배 시간에 이웃교회 목사님의 눈물어린 지원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형용못한 눈시울을 적었다. 오 주님! 존귀영광의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배후 시간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면 사무소, 학교, 지서, 농협, 및 호텔방문으로 나누어 흩어져 갔다. 우리는 미친듯이 흩어져 갔다. 그리고 한시간 후에 다시 모였다. 그 불모지 이방지대에 중학교 여선생이 학생들과 함께 인도되어 왔다.

면 소재지 동리장이 인도되어 왔다. 지서에 경찰관들이 겹손히 무릎을 꿇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 좁은 교회당에 학생과 어른이 팔십여명 인도되어 왔다. 교회 생긴 이후 처음이란다. 준비해간 전도용 다윗과 골리앗이 상연되고 교구 김해규 목사의 전도설교가 있는 후 수십명의 결신자를 해산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준비해간 학용품을 나누어주며 또 케익을 잘라서 나누어 먹으며 친교를 하니 그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를 대접한다고 음식준비에 바쁜 그곳 시골아낙네 집사님의 손길도 바쁘듯 즐거운 듯 웃음꽃이 피고 결코 앉아서 받아먹을 수 없다고 우리의 여전도회 집사님이 건어부치고 함께 일하니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많은 학생이 몰려오니 학생회 임원들도 신바람이 나고 중학교 선생이 오고 동리장이 오고 노인이 오고 어른이 오니 집사님 목사님이 감격하신다. 멸시천대 받던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의 백성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동리장 앞에 무릎꿇고 간절히 애소하는 도시 중년부인이 미쳤을까? 세상천지에 귀부인이 드물었어 찾아와 손을 잡고 이끄니 꿈인가 생시인가?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아내의 죽음으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 지역 교회에 한번도 안가본 그곳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장로라고 회개성 실토를 한다. 예정보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아쉬움의 미련을 남기고 짐을 챙겨 싣고 버스에 올랐으나 차를 움직이지 않는다. 행여 못 미더워서 빵과 음료를 들고 동리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다시금 다짐하느라고 뒤쳐진 집사님이 오면

기 도 문

주님 품에 안겨 주소서

저 하늘을 향해
새생명 주신이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 검게 물든
세상에 몸을 던지는
검은 저들을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의
작은 삶이
주의 삶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소서.

이 어린양을
주의 품에 앉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성 경 (소년부 · 6A10반)

서도 마주치는 시골아낙에게 전도지 주기 바쁘니 우리의 그 짧은 시간이 금쪽같이 여겨진다. 머리숙여 인사하며 손 흔드는 젊은 청년학생과 제방뚝위에 목발을 잡고 배웅하는 목사님 모습이 왜 그리 정답고 아름다울까? 존귀영광 모든권세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겠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니 예정보다 2시간 30분이 지난 저녁 8시 30분이었다.

(디모데전도회 제1지회 제공)

충현프리즘

☆ 목회자세미나 종강

지난 9월 18일부터 10주간 계속되어 온 한국교회 성장 연구원이 주관한 제3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11월 20일 종강했다.

제3학기엔 「성경적 교회론」에 대하여 이종윤위임목사가 제1교시 강의를 계속했으며, 10분의 국내 유수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열강했다.

특히 종강식 이후 충현권사회

(회장: 이옥녀권사)가 마련한 저녁 식사는 이날 참석한 1천여교회 1천여교역자들에게 일일이 대접하는데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권사회 임원, 여전도회 임원들

사랑부·에바다부 학생들의 추수감사 찬양권사회 임원들 손대접하는데 모범을 보여

이 음식을 직접 만드는데 밤을 지새웠으며, 정홍식집사는 닭튀기는 기구(약1천만원 상당)를 교회에 바쳐 같이 거드는데 한몫했음 이 뒤늦게 알려져 호뭇한 화제가

되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대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했으며, 질서정연한 배식은 짧은 시간에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한 즐거운 저녁이었다.

대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피곤을 잊게 한 한순간이었다.

☆ 추수감사 찬양예배

지난 19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었고, 저녁예배는 감사찬양예배로 드려졌다. 유치부 꼬마들의 감사를 표현한 재롱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감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했다.

특히 사랑부, 에바다부 학생들의 감사찬양은 보는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 감사감격의 충만을 넘치게 했다.

여전도회 특강 요약

기독교인의 건강관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에도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필리핀에 집사로서의 의료선교사 파송이 첫번째였는데 김 창인 원로목사님의 간절하면서 간절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다. 김 창인목사님 닭튀김을 소원한다.

우리 몸은 항상 집사자를 유지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하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때 건강해지고 주님의고난을 피할 때 건강은 약화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으니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 음식은 자연식이 좋으며 생수를 마시기 유익하다. 운동은 날마다 할것이며 주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평안하고 병이 안난다. 땀흘리며 살아야 함을 창세기에서 말하셨으니 돈 안들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신앙이 바로 서고 신경도 똑바로 된다. 신경이 억압을 당하면 기 능이 나빠진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건강히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임을 강조한다. 신 성 균 (집사·할렐루야 교회)

장로수상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봄철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받고 비에 젖으며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농부들은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구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의 감사를 그 무엇에 비할수 있으랴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거늘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점검해 보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성도들의 기쁨이여 빨갛게 물들은 불타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자연동산의 아름다움에 도취해가며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저절로 울려나오며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숨씨를 감탄함도 또한 잊을 수 없는 가을의 정취 가을을 준비하며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그대 노인들은 그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준비하는 곳 찾아갈 영혼의 고향을 몰라 소망없이 노인들에 비해 찾아갈 내고향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소망가운데 나날을 살며 본향이 가까와움을 기뻐하여라 인생은 쇠퇴해가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소망가운데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부여된 특권”

성도들의 고귀함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겨울철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행복하여라

흰눈나리는 오솔길을 홀로 걸으며 지나온 청춘시절을 회상해가며 시상(詩想)을 가다듬는 겨울철의 낭만이여

그뿐이라

만물이 소생하는 찬란한 봄철을 맞이하기 위해 은인자중 하면서 인내중에 준비하는 것이 또한 겨울철이라 우리 성도들은 자연의 계시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항상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기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쉬지않고 계속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고대하여라
그대 백발의 길손들이여!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 볼때
일장춘몽과 같은 허무함도 있으리 공허함

분 가운데 미납자들은 속히 반납해줄것을 도서관측은 바라고 있다.

신간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경신학

▲신약개론/ 도날드 거쓰리, 기독교문서선교회

▲신약개론/ 도날드 거쓰리, 기독교문서선교회

▲핵심 성경연구: ① 창세기-말라기/ 위런 위어스비, 나침반사

② 마태복음-로마서

③ 고린도서-계시록

▲구약성경신학/ 윌터 카이저, 생명의 말씀사

▲바칼레이 패턴 구약주석/ 기독교문서선, 전24권(창세기 상·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욥기/ 시편 상·하/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상·하/ 예레미야 상·하,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 2)

▲반즈 성경 주석/ 크리스찬 서적 편(창세기 상·하/ 로마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복음·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2월 1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8과 신앙의 삶

성경: 마 16:24-28

요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찬송: 212, 5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실제적 복종의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세례는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일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의 권위에 거둬 거둬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가지 요건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1. 그리스도를 삶의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그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둬나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으려 하지만 성령에 의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14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마땅히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감사와 자백, 그 밖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의 성경본문은 교회에서 나누어준 매일 성경 읽기표나 충현의 만나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같이 하나님과 이같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달이나 지난해에 했던 성경공부가 오늘까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행해 나갈 때에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뻔전 3:15에서 “너희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힘쓸 때에 신앙이 자라며 풍성한 신앙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4.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히 10:24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도들과의 사랑과 연합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5. 정기적으로 헌금하여 그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고후 9:7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전 수입의 십분의 일인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일조 이상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십일조는 순종의 드림이요 그 외의 헌금은 사랑의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십일조 외에 다른 헌금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갈 5:22-23).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롬 12장, 고전 12-14장, 엡 4장 참조).

함께 생각합시다.

1. 신앙의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2. 오늘 배운 내용에서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둬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